

연등회, 세계 축제로 '발돋움'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한 연등회 연등축제가 5월 11일부터 12일 까지 서울 종로와 조계사 일대에서 열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이후 2번째로 열린 연등회는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명실 상부하게 자리잡았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연등회를 찾은 내·외국인은 약 30만 명으로 이중 외국인인 3만 5천명이 참석했다. 남북관계 악화로 외국인 참가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봉축위의 설명이다.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서 주요내외빈이 제등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5월 10~12일 종로 일원서
- 10만 연등 물결 수놓아
- 내·외국인 30만 명 참가
- 외국인 400명 등제작...행렬 참여
- 서포터즈 활약 기대 이상
- 문화마당 부스 다양해져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11일 제등행렬에는 예년보다 행렬등의 수가 늘었다. 이날 제등행렬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한국관광공사의 주관으로 400여명의 외국인들이 직접 등을 만들어 제등 행렬에 처음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에는 '합성과 감동의 한마당'을 주제로 3만여 사부대중들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관불의식에 이어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연등회 개최사를 통해 "이 땅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지상정토로 일구려는 것이 부처님이 부촉하신 사명"이라며 "지혜와 자비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땅을 만들어가기 위해 실천해가자"고 말했다.

이어 전 대중들은 발원문을 통해 국가와 인종, 종교, 지역, 이념을 넘은 행복과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를 발원했다.

특히 이번 연등회에서는 처음 결성된

'연등회 서포터즈'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지난 4월 3일 대한불교청년회의 주최로 발족한 서포터즈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프랑스, 베트남 등 20개 국가에서 온 76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했다. 그간 언어 통역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서포터즈는 다양한 연등회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해결할 수 있는



12일 열린 전통문화마당에서 어린이가 연꽃 채색 체험을 하고있다.

중요한 단초가 됐다.

12일 열린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은 예년보다 다채로움을 자랑했다. 전통가게체험, 단청체험, 쪽빛 물들이기, 매듭팔찌 만들

기, 탁종이인형 만들기, 토우 부처님 만들기, 한지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새로 선보여져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제불교마당에서는 인도를 비롯해 티베트 네팔 스리랑카 부탄 태국 대만 캄보디아 불교를 소개하는 부스가 마련됐다.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여 개의 부스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 연등회에 대해 박상희 봉축위 팀장은 "연등회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품격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 연등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행렬 등을 늘렸다. 앞으로도 자발적 참여를 연등회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등회 서포터즈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향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야 한다”

재가연대·대불청·대불련, 차별금지법 제정 호소 연이어

김한길·최원식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법안 철회로 인해 제정 무산 위기에 놓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불교계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지연)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 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차별금지법을 통해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입법예고까지 끝난 당연히 입법되어야 할 법안이 다른 누구도 아닌 법안 발의자에 의해 발의 자체가 철회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통령 조차도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로 내세울

만큼 시대적 흐름”이라며 “제1야당이라고 자처하는 정당에서 앞장서서 국가전체의 이익은 무시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는 5월 7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동참을 호소한다'는 제하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재가연대는 호소문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신앙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누구의 신앙,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알고 싶다”고 비판했다. 재가연대는 “차별은 집단의 광기와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것을 조장하는 비민주적인 행위인만큼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종일·이나은 기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논한다

불교생명윤리협, 24일 특별세미나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범용, 박광서)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이도홍)가 5월 24일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이철기 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관계학)가 '평화협정의 대두 배경과 가능성',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가 '김정은 체제의 대외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질서: 평화의 출구전략'을, 김재명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가 '여성의 관점에서 본 전쟁의 참상과 한반도 평화론'을 주제로 발제한다.

논평자로는 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주정환 교수(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중국학과),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이 참여한다. 신종일 기자

인천공항에 봉축 연등 '감은사지 燈' 밝혀

'종교시설물 NO' 입장에 백기
조계사 15일 항의 법회 등
성토 잇달아... 장엄등 허용



인천국제공항 밀레니엄홀에 설치된 연등회 전통등 '감은사지 삼층석탑 등'. 5월 17~23일까지 불을 밝힌다.

인천국제공항에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설치가 허용됐다. 조계사 사부대중의 항의 법회가 진행되지 꼭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인천국제공항사 최홍열 영업본부장은 5월 16일 조계종 문화부를 방문해 “인천국제공항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한국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연등을 설치해달라는 연등회 보존위원회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는 연등회 전통등인 '감은사지 삼층석탑 등'이 설치됐으며, 부처님오신날인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간 밀레니엄 홀에 불 밝혀진다. 이에 앞서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는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출구장에서 항의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항의 법회에서 조계사 대중은 이날 항의 법회에서 조계사 대중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연등회는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의 전통문화행사 중 하나”라

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통등(燈)을 전시하고자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보호재단과 협의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설치제안서를 보냈지만 '특정종교 시설물 설치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 바 있어 종교편향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가 인정한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종교편향적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인천공항 측은 “크리스마스 점등식은 공항 면세점 행사로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출가상담 스님을 찾습니다”

교육원, 상담사 공고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출가사이트(http://monk.buddhism.or.kr)에서 출가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출가상담사'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비구, 비구니 상담사 각 1명으로 소정의 상담지원비가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비구 법계 중덕, 비구니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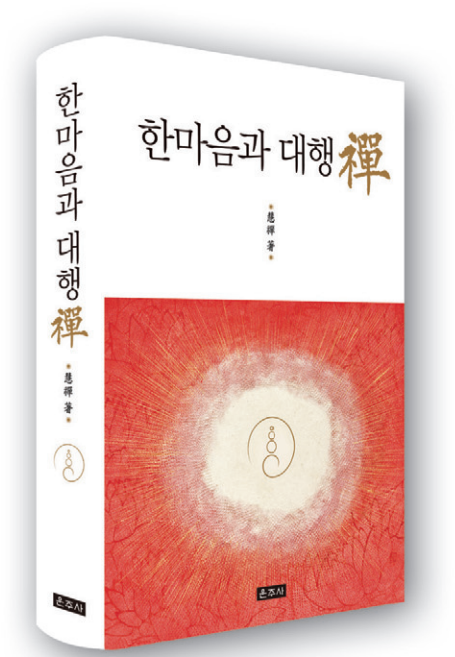
계 정덕 이상의 스님으로 상담사 자격증이 있거나, 중단과 교구분사에서 중무행정과 전법활동 경험이 있어 상담능력이 인정되는 스님이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13일부터 3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tstguy@buddhism.or.kr)로 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6월 4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5월 8일자(제939호) 별지의 대행선사 1주기 추모 특집에서 별지 B1면 하단의 대행선사 탐 사인을 맡은 전장일 화백 기사 내용 중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흥창원 단청장에게 사사했다는 내용은 기자의 실수로 오보이며, 제118호 불화장 성함을 소개한 것도 전 화백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 게재된 것으로 이에 바로 잡습니다.



한마음과 대행 禪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대행 큰스님 원적 1주기 기념 출판!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각고의 고행, 치열한 수행정진, 동체대비심의 무애행과 자애로운 보살행을 보여준 이 시대의 참된 대승보살!
독창적인 선사상과 수행 체계를 세우고, 참선수행의 대중화, 보편화, 현대화를 이끈 시대의 큰 스승!

나라는 경계가 있다면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상대가 어떻게 행하여도 모두가 주인공 나뉠일 뿐이다.
모두가 주인공!

慧禪 저/신국판양장/624쪽/28,000원

